

SPECIAL FEATURE

# Korean Artists Today 1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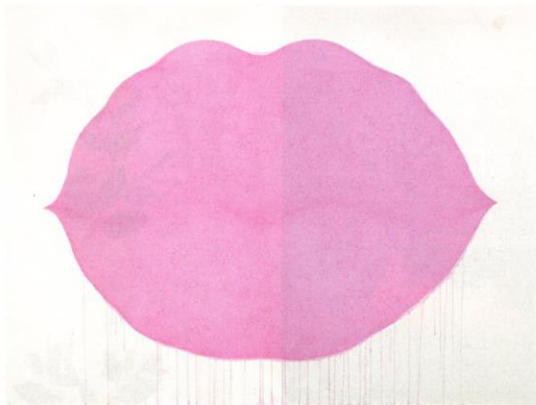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중횡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 김홍주

Kim Hong Joo / b. 1945

홍익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국제갤러리(2015, 2010), 아르코미술관(2009), 대구문화예술회관(2006), 로명갤러리(2005) 등  
**Group Exhibitions** (Korea Tomorrow)(성곡미술관 2015),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국립현대미술관 2014), 《圖》가능한 풍경(올라토미술관 2012),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대전시립미술관 2009), (한국미술-여백의 발견)(삼성리움미술관 2007)등 **Awards** 이충섭미술상(2010), 파라다이스상 문화예술부문(2006), 이인성 미술상(2005), 프랑스 칸느 국제 회화제 특별상(1980) 등 **Current Post** 목원대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수많은 붓질로 형성된 소우주 김홍주의 회화에는 시력의 한계를 시험하듯 미세한 세부(細部)들과 그것들이 구축하는 전체의 커다란 볼륨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스케일의 대비가 존재한다. 그의 회화를 보는 것은 가장 세밀하고 정교한 구조가 얼마나 가장 단순한 형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와 같은 현기증을 안겨 준다. 작가는 무한히 반복적인 붓질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의 커다란 추상적 얼룩이 된다. 분명한 것은 끝없이 반복하여 붓질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회화가 제기하는 문제가 어떻게 한 작가의 삶 속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한 작가의 예술적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것이다. 김홍주의 수많은 미세한 붓질들로 이루어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대한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이들에게 이 섬세하고 민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따르는 그림이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하여 왜 여기에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감상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 둘만한 것은, 얼룩진 거울의 표면에 의해 분리되었던 세계와 예술의 관계가 수많은 작은 붓질(입자들의 소우주에 의해 다시 새롭게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 회화가 전해주는 아름다움과 기쁨이다. 여기에서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 기호들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장소다. 예술가는 이 장소를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소진한다. 수없이 많은 형상들이 그 장소를 대신하지만 예술가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항상 같은 동일한 곳이다. 거울이나 차창 밖에 비친, 수없이 많은 이미지와 소음으로 둘러싸인, 매번 끝을 알 수 없는 기호-입자들의 화엄(華嚴)을 이루는, 지금 그 자신이 있는 장소인 것이다. / 유진상(계원예술대 교수)

위 · (Untitled) 캔버스에 유채 159×212cm 2014  
 아래 · (Untitled) 캔버스에 유채 146×146cm 2011